

『沙石集』의 敬語研究*

- 「侍り」의 待遇性-

都基禎**

(e-mail : kjdo@nsu.ac.kr)

목 차

1. 들어가기
 2. 『沙石集』에 쓰인 「侍り」・「候ふ」의 특징
 3. 地文의 「侍り」
 - 3.1 序文과 追記
 - 3.2 작자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감상
 - 3.3 설화속 등장 인물에 대한 묘사
 - 3.4 와카(和歌)의 고토바가키(詞書)
 - 3.5 佛法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도리를 披瀝
 4. 對話文의 「侍り」
 - 4.1 대우 대상
 - 4.2 사용 대상
 5. 맺음말
-

1. 들어가기

「侍り」는 원래 겸양 표현에 사용된 경어였으나, 헤이안(平安)초기부터 청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에 쓰여져 헤이안 중기에는 그 사용유무에 따라 對話文인가 地文인가를 구별할 정도로 口語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侍り」도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를 전후로 해서 「候ふ」의 사용량이 「侍り」를 능가하게 되며,¹⁾ 중세에는 「候ふ」가 對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일본어학

者敬語로 전용되면서 「侍り」는 口語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侍り」의 이러한 시대적 특성과는 달리 중세 가마쿠라(鎌倉)시대에 집필된 샤펜키슈(『沙石集』: 이하 『沙石集』로 표기)에는 중세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地文이나 대화문에 많은 「侍り」가 사용되고 있어 語法上的 하나의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沙石集』에 있어서 「侍り」의 이러한 待遇性이 이 자료만이 가지는 특성인가, 아니면 중세적 새로운 용법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 사용한 예문은 岩波書店 日本古典文學大系 85 『沙石集』(梵舜本/渡辺綱也 校註)에서 인용했다.

2. 『沙石集』에 쓰인 「侍り」・「候ふ」의 특징

『沙石集』는 중세 가마쿠라시대에 무주(無住)에 의해 집필된 불교설화집이다. 고안(弘安) 2년(1279년)여름에 기고되었다가 집필이 잠시 중단되어 4년 후인 고안(弘安) 6년(1283년)에 완성된 작품이다.

본 논문에 인용된 『沙石集』는 본순본(『梵舜本』:お茶の水圖書館藏)으로 全 十卷五冊(古本系)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卷에서 五卷까지는 다른 古本系나 流布本系の 사본들과 비교해 보면, 설화의 주제나 배열이 같으며 순서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六卷 이후에는 다른 사본에서는 볼 수 없는 세속적인 이야기나 세태나 풍속, 신분 제도 등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시대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중세어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²⁾

우선 『沙石集』에 사용된 「侍り」의 사용량을 보면,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侍り」는 地文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사용량은 적지만 대화문에서도 「候ふ」와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다. 「侍り」는 원래 헤이안(平安)시대에 대화문에서 특정한 청자에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한 대자경어로 주로 사용된 경어였으며, 地文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地文인 경우, 화자의 경의대상이 특정한 청자를 대우하는 대화문에서의 대상과는 다른 일반 독자가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沙石集』에 사용된 「侍り」는

1)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에는 「侍り」의 사용이 330例, 「候ふ」가 582例로 「候ふ」가 「侍り」를 능가하고 있다. (桜井光昭, 1996 『今昔物語集の語法の研究』 明治書院. pp.3-27)

2) 都基禎(2009) 「『沙石集』의 傳本에 관한 一考察」 『日本言語文化』 14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pp.90-91

헤이안 시대 대화문에 多用되었던 「侍り」와는 同質의 대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대화문에 있어서 중세에는 당대의 口語인 「候ふ」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본 자료에서는 「候ふ」와 함께 「侍り」가 併用되고 있어 그 사용 대상이나 敬度, 등에 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侍り」의 용법 변화를 地文과 대화문으로 나누어 그 대우성에 관해서 살펴본다.

〈表1〉 『沙石集』에 쓰인 「侍り」・「候ふ」의 사용수³⁾

| 卷 | 侍 | | | 候 | | |
|----|-----|-----|-----|-----|-----|-----|
| | 會話 | 地の文 | 計 | 會話 | 地の文 | 計 |
| 一 | 14 | 33 | 47 | 20 | 0 | 20 |
| 二 | 12 | 17 | 29 | 26 | 0 | 26 |
| 三 | 15 | 24 | 39 | 70 | 0 | 70 |
| 四 | 6 | 8 | 14 | 18 | 0 | 18 |
| 五本 | 3 | 13 | 16 | 17 | 0 | 17 |
| 五末 | 3 | 33 | 36 | 26 | 0 | 26 |
| 六 | 8 | 15 | 23 | 46 | 0 | 46 |
| 七 | 28 | 28 | 56 | 82 | 0 | 82 |
| 八 | 10 | 6 | 16 | 134 | 1 | 135 |
| 九 | 25 | 11 | 36 | 96 | 3 | 99 |
| 十本 | 21 | 11 | 32 | 39 | 2 | 41 |
| 十末 | 17 | 23 | 40 | 16 | 2 | 18 |
| 計 | 162 | 222 | 384 | 590 | 8 | 598 |

3. 地文의 「侍り」

3.1 序文과 追記

〈1〉此故ニ、老ノ眠ヲサマシ、徒ラナル手スサミニ、見シ事聞シ事、思ヒイダスニ隨テ、難波江ノヨシアシヲモ撰ズ、藻鹽草手ニ任セテ、書キ集侍り。

(序)

3) 山下正治(1979) 「沙石集の研究(七)」- 「侍」と「候」について 『立正大学紀要』 12. p.18

<2> 仰此物語ノ旨趣、序ニ書侍リト云ヘドモ、猶心ツキガタキ故ニ、重テ述懷ス。世間ニ古キ物語多シトイヘドモ、近代ノ事ハ書置事モ侍ラザルニヤ。代ノ末ニ聞ヘザラン事モ、ナゴリナク覺テ、愚ナル人ノ心ヲススムル便リニヤト、拙キ詞ヲハバカラズ、書置キ侍ル也。……和漢ノ事、古今ノ物語、ソコハカトナキシナジナ、書置キ侍リ。賢人ノマヘニハ、ススメガ[タ]シト云ドモ、ヤム事ナクシテ集メ侍リ。本ヨリ田舎ニヲイソダチテ、文書モ習ハズ、歌道モ不知、佛法ノ一宗モ、實トシフ學セル事ナキ、ヒタソラノ山ガツニテ侍ルガ…… (述懷事)

예문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자 자신이 설화를 집필하게 된 동기나 취지 등을 나타내는 머리말 부분에 1회, 그리고 집필이 끝난 마지막 술회록 부분에 「侍り」를 10회나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작자가 자신 속에 품은 생각이나 감개 추억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侍り」로 판단되며, 헤이안 시대 대화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정한 청자를 대우하기 위한 「侍り」와는 그 대우성이 다르다. 작품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독자에 대한 작자의 주장이나 설명, 감상 등을 나타내는 부분에 「侍り」가 多用되고 있으며, 이것은 독자에 대한 작자의 정중한 대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2 작자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감상

<3> 去シ弘安元年夏比、坂東ニ疫病ヲヒタタシクシテ、人多ク病死侍シニ、親キ小童ノ勞侍シガ、「童部ノ來テ、トカクナブリ候、ムツカシク候」ト申シカベ、僧共四五人、千手陀羅尼ヲ誦ルニ、僅ニ廿一返滿テ後、病人申シハ、「此ニミヘツル童部、頭ヲ打ワラレテ、ウラメシゲニテ、ナクナク北ノ方ヘマカリヌ。又寺ヨリ手ヲホキ佛ヲワシマシテ、追出セ給ヌル」ト云テ、病イエニキ。親見聞シ事ニテ侍レバ、人ヅテナラズ。(7-24)

고안(弘安) 元年(1278)에 역병이 심하게 돌아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병에 걸렸는데 스님 너댓 명이 천수다라니를 암송해서 병을 낫게 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예문<3>의 「親見聞シ事ニテ侍レバ、」에서 알 수 있듯이, 집필자인 무주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설화내용을 서술하는데 부분에 「侍り」를 사용하고 있다.

3.3 설화속 등장 인물에 대한 묘사

<4> 或僧眞言ノ心ザシ侍ルニ、指事アリテ、關東ヘ下向シ侍リ。上洛シテ傳受スベキヨシ申侍リケレバ、…… (2-8)

예문 <4>와 같이 설화속 등장 인물이나 사물, 장소의 묘사 부분에도 「侍り」의 사용이 보인다. 원래 「侍り」는 화자 자신이나 화자측에 관한 화제에만 사용되고 다른 사람의 행위 동작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경어였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는 수록자인 작자 자신이 직접 듣고 경험한 것처럼, 즉 설화 내용의 진실성을 주기 위해서 화자 자신측의 화제로 서술하는 부분에 「侍り」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3.4 와카(和歌)의 고토भाग키(詞書)

<5>美濃國、トキノ櫻堂ト云ハ、花ノ名所ナリ。花ノサカリニ、何物ノシ
 タリケルヤラム、
 トキニキタレドムスビメモナシ
 トカキテ、櫻ノ枝ニ結ビツケテ侍リケルニ、付ル人モナカ[リ]ケレ
 バ、鎌田次郎左衛門尉義行、
 フキムスブ風ニミダル、絲櫻
 トツケタルヨシ、カタリ侍リキ。 (5末-7)

『沙石集』의 5卷本과 5卷末에는 많은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 와카의 앞 부분에서 와카를 지은 시기나 장소, 동기 등을 적은 고토भाग키(詞書) 부분에 「侍り」 표현이 多用되고 있다.

3.5 佛法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도리를 披瀝

<6>凡三界ノ流轉、四生ノ轉變、ヒトヘニ一念ノ妄心ニヨリテ、六塵ノ幻境ヲヨ
 ヅルニヨル。夢幻虛假ノ世間ヲマコトト思シヨリ、思想覺觀ノ分別休ム時
 ナシ。過去ヲカヘリミ、未來ヲ思ヤリ、現量ニクラクシテ、念々ニキエユ
 ク身ヲ重クシ、步々ニツヅマル命ヲマボル。人間窓々トシテ、冥途ノ近ヅ
 ク事ヲモ不知、眼前カリナル事ヲノミ營テ、身ノ後ノ實ノ道ノカテヲツツ
 マザル事、靜ニ思トクニ、カナシクコソ侍レ。(中略)、實ニ人間ノ思出ナク
 覺ヘ侍リシママニ、只此コトワリバカリヲ思シリツツ、道心ニハアラデ、
 人ナミナミニ隱遁ノ形ニナリ侍リシ後ハ、人ナラヌ身ハ、シヅカニイトマ
 アリテ、心ヤスク日月ヲヨクリ侍レバ、イトハザリシ昔モ、イマサラクヤ
 シク覺ヘ侍シママニ、カク思ツツケ侍ベリ。 (5末-11)

한순간의 망령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본능의 욕망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며, 꿈같이 헛되고 거짓된 세상을 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실을 분별하기 어렵다. 세상일로 분주하다가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도 모르고 눈앞의 허망한 일만 영위하고 死後 가게 될 영혼의 세계인 冥途에서 먹을 양식도 쌓지도 않으

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중략) 참으로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치만 깨달으면 道心이 없어도 은둔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을 것인데……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교 교리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밝히는 각 설화의 마지막 부분에 「侍り」가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地文에 있어서는 「侍り」가 작자의 주장과 설명, 감상 등을 나타내는 서문과 술회록 부분, 그리고 작자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설화처럼 서술해 나가는 부분에 「侍り」를多用하고 있다. 또한 「侍り」는 와카의 고토바가키나 불교 교리에 대한 설법이 나 인간의 도리를 피력하는 부분에 「侍り」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4. 對話文의 「侍り」

『沙石集』의 대화문에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侍り」가 162例 사용되고 있다. 이를 각 권별로 화자와 청자, 그리고 사용 횟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권>

- * 1-2 俗人→笠置上人 (2)
- * 1-3 公顯僧正→遁世聖 (2)
- * 1-4 子供→常觀坊上人 (2) * 石聖→人々 (1)
- * 1-6 障門僧都→ある女 (2)
- * 1-7 永超僧都→大明神 (4)
- * 1-9 阿闍梨→地頭 (1)

<2권>

- * 2-4 若い女→武士 (1) * 若い女→ある家の主 (1)
- * 2-6 女童→法師 (4) * 牛頭馬頭→地蔵菩薩 (1)
- * 閻羅大王→讚岐房 (2) * 餓鬼→地蔵菩薩 (1)
- * 2-7 行人→行人 (2)

<3권>

- * 3-1 法師→人々 (5)
- * 3-3 巖融房→女房の妹 (1) * 俗人→人々 (1) * 比丘→居士 (1)

- * 3-4 僧→真觀長老 (2)
- * 3-8 明恵上人→梅尾上人 (5)

<4권>

- * 4-3 上人→女人 (1) * 女人→上人 (1)
- * 4-4 中蓮房→僧 (2)
- * 4-6 尼→人々 (1)
- * 4-9 春乗坊→法然上人 (1)

<5본권>

- * 5本-1 山僧→僧 (1)
- * 5本-4 侍従房→僧綱 (1) * 菩薩鹿王→国王 (1)

<5말권>

- * 5末-6 藤原長能卿→藤原公任 (1) * 壬生忠見→平兼盛 (2)

<6권>

- * 6-1 施主分→ある尼公 (3)
- * 6-8 隣の人→山賊 (1) * 山賊→隣の人 (1)
- * 6-9 榮朝上人→聴衆 (2) * 山伏→榮朝上人 (1)

<7권>

- * 7-1 遊女→殿上人 (2)
- * 7-4 男→蛇 (6)
- * 7-9 母犬→山寺の人々 (3) * 山寺の人々→ある俗人 (2)
- * 7-14 殺生した男→鶯 (1)
- * 7-16 修行僧→ある人 (1)
- * 7-23 寺僧→相人 (1) * ある聖→人々 (2)
* 神主の子息→ある僧 (1)
- * 7-24 病氣の女→大円房上人の弟子 (2)
- * 7-25 ある上人→人々 (3) * 漢朝の北叟という老人→人々 (4)

<8권>

- * 8-10 小法師→僧共 (1)
- * 8-11 小兒→坊主 (1) * ある人→京の人 (1)

- * 8-21 女人→ある人 (1)
- * 8-23 阿闍梨(施主分)→人々 (1) * 鹿野の尼公→栄西僧正 (3)
* 栄西僧正→鹿野の尼公 (1) * 出家者→仏 (1)

<9권>

- * 9-1 正直な女→山寺の別堂 (3)
- * 9-4 地頭の一族→地頭 (1)
- * 9-5 後见人→貧しい俗人 (1) * 貧しい俗人→金持ちの俗人 (1)
- * 9-7 女房→禪門 (1) * 女房の息子→禪門 (1) * 女房→禪門 (2)
- * 9-8 食物を盗んだ子→春乗坊 (3) * 食物を盗んだ子の母→春乗坊の使者 (3)
* 山寺のある僧→白川院 (1)
- * 9-9 貧しい子→人々 (2)
- * 9-10 貧しい母→人々 (1) * 捨得という俗人→豊干禪師 (2)
- * 9-12 貧しい侍→人々 (1)
- * 9-13 鎌倉の大臣(源実朝)→莊嚴坊 (2)

<10본권>

- * 10本-3 宗春坊→同門の僧 (1)
- * 10本-4 長男→兄弟 (2) * 明遍僧都→僧都の使者 (2)
- * 10本-6 判官→強盜法師 (1) * 強盜法師→判官 (2)
- * 10本-7 修行者1→修行者2 (4) * 修行者2→修行者1 (2)
* 修行者1→修行者2 (2)
- * 10本-8 一乗院僧正→光明院僧正 (1) * 大臣→覚超僧都 (2)
- * 10本-9 梟鴨上人→国司 (2)

<10말권>

- * 10末-1 俗人→山寺法師 (2)
- * 10末-2 山賤→実賢僧正 (1 4)
- * 10末-3 鎌倉の大臣(源実朝)→栄西僧正 (1)

이상, <1권>에서 <10末권>까지의 「侍り」를 다음과 같이 (I)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 신분 (II)殿, 大臣 등, 고위직 신분 (III)상급 승려⁴⁾, 大宮司, (IV)가마쿠라 정권의 지배층 (V)무사계급, 女房 (VI)출가자⁵⁾, 神官 (VII)서민, 俗人

4) ~上人, ~禪門, ~聖, ~禪師, ~僧正, ~僧都, ~阿闍梨, ~長老, ~僧綱, ~別堂이 여기에 속한다.

5) ~法師, ~坊, ~房, ~山伏, ~尼公, ~禪門, 등을 말한

(VIII)超人的인 것 (IX)외국 설화 등, 계층별로 나누어 그 용례수와 사용률(%)을 조사한 것이 <표2> 와 <표3>이다. 분석에 있어서는 「侍り」로 대우한 대상(칭자)과 「侍り」를 사용한 대상(화자)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表2> 대화문에 있어서의 「侍り」 사용 횟수(칭자)

| 대우대상(칭자) | 사용수 (例) | 비율 (%) |
|----------------------|------------|--------|
| (I)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 신분 | 1 | 0.6 |
| (II)殿, 大臣, 등 고위직 | 3 | 1.9 |
| (III)상급 승려, 大宮司, | 47 | 29 |
| (IV)가마쿠라 정권의 지배층 | 6 | 3.7 |
| (V)무사계급, 女房 | 3 | 1.8 |
| (VI)출가자, 神官, | 38 | 23.5 |
| (VII)서민, 俗人 | 40 | 24.7 |
| (VIII)超人的인 것, | 20 | 12.3 |
| (IX)외국 설화 | 4 | 2.5 |
| 총 사용수 | 162 | 100 |

<表3> 대화문에 있어서의 「侍り」 사용 횟수(화자)

| 사용대상(화자) | 사용수 (例) | 비율 (%) |
|----------------------|------------|-----------|
| (I)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최고 신분 | 0 | 0 |
| (II)殿, 大臣, 등 고위직 | 8 | 4.9 |
| (III)상급 승려, 大宮司, | 29 | 18 |
| (IV)가마쿠라 정권의 지배층 | 1 | 0.6 |
| (V)무사계급, 女房 | 6 | 3.7 |
| (VI)출가자, 神官, | 34 | 21 |
| (VII)서민, 俗人 | 60 | 37 |
| (VIII)超人的인 것, | 20 | 12.3 |
| (IX)외국 설화 | 4 | 2.5 |
| 총 사용수 | 162 | 100 |

4.1 대우 대상

『沙石集』에는 불교설화라는 설정에서 당연히 승려나 출가자들의 설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侍り」로 대우하는 대상이 (III)상급 승려, 大宮司,(29%) (VI)출가자, 神官,(23.5%) (VII)서민, 俗人(24.7%)

계층이 가장 많다. <표2>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대화문에 있어서 「侍り」의 사용 특징에 관해서 살펴본다.

<7>故金剛王院ノ僧正、年タケテ後、佛法ノ心アル弟子ニ、物語リセラレケルハ、若キ時、高野詣ノ便宜ニ、和州ノ山寺共巡禮セシニ、葛木ノ山ノ邊ニ行クレテ、或山ガツノ家ニ立ヨリテ、ヤドヨカルニ、年タケタル法師出デ合テ、「見苦シゲニ侍レドモ、入セ給ヘ」ト云。サテ立入ヌ。粟ノ飯ヨ、折敷ニ木ノ葉打シ〔キ〕テ取出シタリ。「尋常ノ人ニテ御座ストミマイラスレバ、器物ナンド便ナウテ」ト云テ、薪ナンドシテ、ヨモスガラ物語セシハ、「ナレナレシクモ侍ベリ、恐レナル方タモ侍レドモ、我身ノヤウ、委ク物語申スベシ」トテ、「是ハ此山里ノ山ガツガ子ニテ侍ガ、幼少ノトキ、興福寺ノ或僧房ニアリテ、學問仕リシホドニ、……」ト云。

<10末-2>

예문 <7>은 故짓켄(實賢) 僧正이 젊었을 때, 山寺를 순례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장면으로 가즈라기야마(葛木山)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산사람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면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게 된다. 산사람이 僧正에 대해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과 佛法에 대한 大要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侍り」를 14회나 사용하고 있다. 『沙石集』 전반에 걸쳐 예문 <7>과 같은 高僧들에 대한 일화나 山寺에서의 일반 스님들이나 출가자에 관한 설화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작품 전체에서 보면,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님들의 대화에 「侍り」가 多用되며, 이것은 「侍り」가 가지고 있는 語感인 고통스러움이나 예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8>寛喜年中ニ上總國ニ山賤アリケリ。(中略)隣ノ物訪ヒテ、「イカニ憑ナク見ヘ給コソ淺間シク侍レ。思事モ云置キ給ヘ。念佛バシモ申給ヘカシ」ト云ニ、「イカサマニモ此飢渴ニタスカルベシトモ覺ネバ、命ノヲシキ事ハナシ。腹脹テ、胸ヲセメテ、難堪サニ、念佛ノ事モ覺ヘ侍ラズ。只思事トテハ、哀レ下風ヲ一ツヒリテ死ナバヤトコソ思ヘ」ト、最後ノ詞ニ申テゾ息絶ニケル。(6-8)

예문 <8>에서는 산속에서 살아가는 미천한 사람이 배탈이 나서 죽게 되었는데, 병문안 온 이웃 서로간의 대화에 「侍り」를 사용하고 있다. 「侍り」의 대우 대상이 (VII)단계인 서민이나 俗人들에게도 쓰이고 있어 「侍り」의 敬度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9>天徳ノ御歌合時、兼盛・忠見、共ニ御隨身ニテ、左右ニツヒテケリ。(中略)兼盛訪ヒケレバ、「別ノ病ニアラズ。御歌合時、名歌ヨミ出シテ

覺侍シニ、殿ノ、「物ヤ思ト人ノトフマデ」ニ、アフト思テ、アサマシク
覺ヘシヨリ、ムネフサガリテ、カク思侍リヌ」ト、ツイニ身マカリニケ
リ。執心コソヨシナケドモ、道ヲ執スル習ヒアワレニコソ。 (5末-6)

<9>는 덴토쿠(天德) 4년(960년)에 있었던 와카 시합에서 ‘가네모리(兼盛)’와 겨루기에 진 다다미(忠見)가 이로 인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侍り」의 대우 대상이 고위 신분인 (II)단계인 ‘가네모리’에게 2회 사용되고 있다. 예문 <8>의 「侍り」와 비교하면 敬度の 輕重을 알 수 없는 「侍り」의 사용이다. 다음은 최고 신분인 (I)계층을 대우 대상으로 한 「侍り」의 사용을 본다.

<10>(山寺の僧→白河院)此僧申ケルハ、「老母ガ命ヲ助テ、暫モヤソイ候ント思
テ、我身イカナル科ニモ行ナワレ候へ、母ガ命スコシモ延コト本意ト存候。
此魚ハ今ハタスカルマジキニテ候へバ、コレヲ母ガモトヘツカワシ [テ]、
一口モ物クキテ候ヨシヲ承テ、イカナル御禁ニモアタリ侍ラバ、モトヨリ存
ジマウケタル事也。恨候マジ」ト奏シテ、涙ヲ流シケレバ、…… (9-8)

<10>의 「侍り」는 『沙石集』의 대화문에서 (I)계층인 최고 신분에게 사용된 유일한 것으로 대화문 속에 빈출하는 시라카와인(白河院)을 대우하기 위한 「候ふ」 표현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예문 <8>의 「侍り」에서 본 바와 같이, 헤이안 시대와는 다르게 그 敬도가 높지 않는 「侍り」를 (I)(II)단계의 계층에 사용했다는 것은 용법상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는다. 『沙石集』에서는 이와 같은 높은 신분에 사용된 「侍り」는 5末-6話에서 3회, 그리고 9-8話에서 1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세에는 「侍り」가 文體的 用法⁶⁾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면, <9><10>의 「侍り」는 청자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에 의한 어떤 의도적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9>의 「侍り」는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300년 전의 인물로 想定해 헤이안 시대의 구어인 「侍り」 표현을 통해 당시의 왕조적 분위기(예스러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0>의 대화문에서는 시라카와인(白河院)을 대우하기 위해 當代語인 「候ふ」를 6회나 사용하다가 예외적으로 1회 「侍り」를 사용하고 있다. 이 대화문에 쓰인 「侍り」는 살생을 금하는 시기에 모친 봉양을 위해 고기를 잡았으니, 그 벌은 엄중히 달게 받겠다라는 어떤 「단호함」이 담긴 스님의 엄숙한 말투를 나타내기 위해 작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문체적 표현의 「侍り」로

6) 작자가 문장에서 어떤 美的 표현 효과(정중함, 비장함, 고풍스러움, 등)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법(都基禎, 2008 『「とはずがり」의 敬語 研究』 제이앤씨. pp.128-131 참조)

판단된다.

4.2 사용 대상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侍り」의 사용 대상은 (Ⅲ)(Ⅵ)(Ⅶ)계층인 高僧이나 출가자, 서민 등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1>(山寺の中蓮房→山寺の僧)和州松尾ト云山寺ニ、中蓮房ト云僧アリケリ。中風ノ後、瀧田ノ大道ノ邊ニ、チキサキ庵ヲ結テスミケリ。大道ヲ山寺ノ僧供ノトタルゴトニ、「御房ハ聖ニテ御坐カ」ト問フテ、「聖ナリ」ト云ヘバ、「トクトク妻シ給エ。我身ハ隨分ニ學生ニテ、若フヨリヒジリテ侍シカバ、弟子門徒モ其數多カリシカドモ、カカル中風者、片輪人ニナリテ後ニ、サル者アリシトモ、思ヒアハザルママニ、スギワビテ、ヒタソラニ乞匄非人ニナリハテテ、サスガ命ステラレズシテ、邊ニシテ、命ヲツギ侍也。……………」 (4-4)

<11>에서는 산사의 노승이 중풍을 얻어 길가에 살고 있는데, 병이 나서 불구가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니 지나가는 스님들에게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아내를 얻으라고 권하는 장면에서 「侍り」가 2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沙石集』 전반에 걸쳐 高僧이나 출가자간의 대화에 「侍り」가 多用되는 특징이 있다.⁷⁾

<12>(母犬→山寺の人々)此母犬申ケルハ、「我身ハ、先生ニナニガシト申シ、遊女ニテアリシガ、五人ノ子夫ヲモチテ侍シガ、……………、一人ハ物ニモ覺ヘズシテ、我ヲワヅラハス事ノミ侍シカバ、惡ミ思ヒナガラスゴシ侍キ。今此五人ノ子ハ、彼五人ノ夫ナリ。……………」 (7-9)

<12>는 산에서 키운 어미개가 사람들에게 꿈에 나타나 前生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서 「侍り」가 3회 사용되고 있으며 『沙石集』에는 이와 같이 초인적인 대상인 神佛이나 동물간의 대화에 「侍り」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⁸⁾ 이 밖에 「侍り」는 외국 설화를 소개하는데 쓰인 例가 있다.

7) 『沙石集』에서는 (Ⅳ)(Ⅴ)계층인 가마쿠라 정권의 지배층이나 무사계급들의 대화문(〈3-2話〉〈7-11話〉〈8-15話〉〈9-4話〉)이나, 제3자의 화자의 인물을 묘사하는 데는 「侍り」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의 구어체인 「候ふ」가 專用되고 있다. (都基禎, 2011 「『沙石集』의 敬語研究-「侍り」와 「候ふ」를 中心으로」 『日本文化學報』50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34-35)

8) * 永超僧都→大明神 (1-7) [4] * 牛頭馬頭→地藏菩薩(2-6)[1] * 閻羅大王→讚岐房(2-6)[2] * 餓鬼→地藏菩薩(2-6)[1] * 菩薩鹿王→國王(5本-4)[1] * 蛇に妻を犯された者→蛇(7-4)[6] * 男→鶯の雌(7-14)[1] * 出家者→仏(8-23)[1] ([]는 사용횟수)

<13>漢朝ニ北叟ト云俗アリケリ。事ニフレテ、憂悅事ナシ。或時、只一疋モテル馬、イツチトモナク失ヌ。隣ノ人訪ヒケレバ、「イサ、悅ベキ事ニテカ侍ラム、歎クベキ事ニテカ侍ラム」トゾ云ケル。サル程ニ兩三日アレテ、天下ニ難有程ノ駿馬ヲ具シテ來ル。人又、「御歎ト思タレバ、御悅ニコソ」ト云ヘバ、又、「是モ可歎事ニテカ侍ラム」トテ不悅。最愛ノ子、此馬ニ乗テ遊程ニ、落テ臂ヲ打〔ヲ〕ル。人又訪テ、「此御馬ノ出來ル事、御悅ト思ヒタレバ、御歎ニコソ」ト云ヘバ、又、「是モ可悅事ニテカ侍ラム」トテ、不歎ザル程ニ、天下ニ大亂發テ、武士多ク向テ亡ケルニ、此子、カタワニヨリテ命ヲ全ス。事ニ觸テ此理リアルベシ。(7-25)

<13>은 예난지(淮南子)의 「人間訓」에 나오는 「새옹지마」이야기로 중국의 호쿠소(北叟)라는 노인이 이웃 사람들과의 대화문에 「侍り」를 4회 사용하고 있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沙石集』에 쓰인 「侍り」의 분석을 통해 이 자료가 중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非當代語라 할 수 있는 「侍り」가 多用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地文에서는 작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 등을 독자에게 어필하는 序文이나 述懷錄, 그리고 採錄한 설화를 마치 작자가 경험한 이야기처럼 서술하는 부분에 「侍り」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侍り」는 와카를 지은 동기와 시기, 장소 등을 나타내는 곳이나 佛法에 대한 설법이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披瀝하는 부분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즉, 「侍り」는 작자가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풍스럽고 정중하게 독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화문에서는 「侍り」가 162例 사용되고 있다. 이 중 대우 대상(청자)이 (III)상급 승려에게 47例(29%), (VI)출가자에게 38例(23.5%), (VII)서민 계층에게 40例(24.7%)로 전체 사용량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

「侍り」가 높은 신분인 (I)(II)계층에 대해서도 4例 쓰이고 있으나, 이들 표현은 「侍り」가 敬意를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문장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 효과(고풍스러움, 단호함)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4例를 제외하고는 「侍り」가 전체적으로 보면, 승려나 출가자, 그리고 서민들을 대우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敬度は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侍り」는 神이나 동물들과 같은 비현실적인 대상과의 대화에도 20例(12.3%)

사용되고 있으며, 외국 설화에도 4例(2.5%) 보인다.

이상, 『沙石集』는 불교 설화집이라는 설정에서 스님들이나 출가자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상들에게 어울리는 옛스러운 「侍り」의 표현을 통해 문장의 어떤 효과(고풍스러움, 정중함, 반론, 進言, 비현실성, 등)를 독자에게 나타내기 위한 작자의 의도적 표현으로 非當代語인 「侍り」가 多用된 것으로 판단된다.

【参考文献】

- 穂田定樹(1976) 『中古中世の敬語の研究』 清文堂. pp.155-205
- 黒沢幸子(1975) 「中世説話集における待遇表現の研究－「候ふ」「侍り」を中心に－」 『文学論藻』 50 東洋大学国語国文学会. pp.131-155
- 桜井光昭(1966) 『今昔物語集の語法の研究』 明治書院. pp.3-27
- 佐藤武義(1973) 「国語史上からみた『宇治拾遺物語』の「侍り」と「候ふ」」
『国語と国文』 50.11. pp.37-52
- 都基禎(2008) 『とはずがたりの敬語研究』 제이앤씨. pp.129-131
- (2009) 「『沙石集』의 傳本에 관한 一考察」 『日本言語文化』 14輯
韓國日本言語文化學會. pp.90-91
- (2011) 「『沙石集』의 敬語研究－「侍り」와 「候ふ」를 中心으로」
『日本文化學報』 50輯 韓國日本文化學會. pp.34-35
- 西田直敏(1978) 「平家物語の「候ふ」」 『国語と国文学』 45. pp.75-90
- 布山清吉(1982) 『「侍り」の国語学的研究』 桜楓社. pp.417-491
- 山下正治(1979) 「『沙石集』の研究(七)－「侍り」と「候ふ」について」
『立正大学紀要』 12. pp.16-25
- 若林俊英(1978) 「沙石集の会話文における「侍り」と「候ふ」」 『湘南文学』 12.
pp.63-71
- 渡辺綱也 校註(1966) 『日本古典文学大系 85 沙石集』 岩波書店. pp.57-462

要 旨

『沙石集』には、中世鎌倉の資料にも関わらず、「侍り」が依然として多用されており、語法上の一つの特徴をもっている。

まず、地の文では、作者自身の考えや感想などを読者にアピールしている序文や述懐文、また、採録した説話をまるで作者が経験した話のように記述する部分に「侍り」が使用されている。そのほか、「侍り」は、和歌を作った動機と時期、場所などを表す部分や仏法の教え、人間としての道理を表明している部分に多く使われている。つまり、作者自身の経験、感想を慎み深く述べるために用いられた「侍り」と判断される。

会話文においては「侍り」が162例使われている。主に、高僧(29%)や出家者(23.5%)、庶民(24.7%)の層を聞き手とし、全体の使用量の77.2%を占めている。「侍り」が(I)(II)階層の高い身分に4例使われているが、これは「侍り」が聞き手に敬意を表すのではなく、文におけるある種の効果を得るためのものと考えられる。そのほか、外国の物語や神や動物のような非現実的な対象との対話にも「侍り」が用いられている。

以上、『沙石集』は仏教説話集という設定で、僧侶や出家者の話が集中しており、これらの対象にふさわしい「侍り」の表現を通じて文章においてある一定の効果(古めかしさ、改まり、反論、進言、非現実性、など)を得るための作者の意図的な表現で非当代語の「侍り」が多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侍り、地の文、会話文、古めかしさ、改まり、文体的用法

투 고 : 2012. 5. 31
1차 심사 : 2012. 6. 16
2차 심사 : 2012. 7. 7